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 재무부, 중국 환율정책에 우려 표명

- 티모시 가이스너(Timothy Geithner)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무역상대국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율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 경제정책 이슈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개선의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는 양국 간에 계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 가이트너 장관의 연설은 미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회는 지난 6월 중국이 위안화 변동성 확대를 약속한 후에도 위안화 절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그는 미국이 지난 수요일 두건의 WTO협정 위반으로 중국을 고발했으며, 미국 철강 노동자들로부터 접수된 중국의 정책에 대한 탄원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바마 정부는 중국 문제의 우려를 다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미국은 위안화의 재조정 문제가 한국에서 개최될 G20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미국과 중국의 환율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엔화 절상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며, 가이트너 장관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
 - 일본 재무성 장관인 나오토 칸(Naoto Kan)은 지난 수요일 엔화 절상 폭이 방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엔달러 환율은 82.86 달러에서 85.52달러로 하락함.
 - 일본 통화당국은 정확한 개입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외환거래자들은 하루 동안 117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시장에 매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 당국은 개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의 외환정책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샌더 래빈(Sander Levin)하원 의원은 이기적인 환율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뿐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번 외환개입이 매우 불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을 비판함.

(AFP 등, 9/15)